

역대급 불장에 몰리는 투자자들… 증권사 ‘문전성시’

자녀 신규계좌 개설·휴면계좌 복구 등 거래 문의 급증
객장마다 대기줄… 부동산 대기자금 등 머니무브 폭발

지난 23일 오후 1시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의 한 증권사. 최근 부쩍 늘어난 방문객들
로 인해 증권사 내부는 대기실에 앉을 자
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부산했다.

이날 오전 해당 증권사를 찾은 고객은
60여명. 점심시간이 지나도 방문객이 줄
지 않아 대기인원만 15명이 넘어갔다. 고
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은 점심 식사도 제대
로 먹지 못할 정도였다.

코스피가 역대급 불장을 이어가면서 증
권가에 개인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증권사를 찾는 이들 대부분은 자녀의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오랫동안 거래
를 하지 않아 휴면계좌로 등록된 계좌를
다시 사용하기 위해 내점하는 경우가 많
았다.

또 노년층은 익숙하지 않은 비대면 거
래방법을 배우기 위해 직접 방문했다. 실
제로 한쪽에서는 스마트폰 조작이 익숙
하지 않은 어르신을 상대로 애플레이
션 사용 방법을 알려주는 모습도 눈에 띄
었다.

같은 날 광주 동구 금남로의 다른 증권
사 역시 마찬가지로, 대기 좌석이 부족해
고객 상당수가 객장을 서성이고 있었다.

노철규(40)는 “4년 전 투자를 시작했
는데 지금은 S&P500에 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최근 코스피 장이 좋아 2달 전

태어난 아이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
음으로 미리 증권계좌를 만들려고 찾아왔
다”고 말했다.

이모씨(63)도 “요즘은 유튜브나 SNS
등을 이용해 투자 정보들을 손쉽게 알 수
있고 일반인도 쉽게 배울 수 있어 좋다”며
“이번에 자녀가 성인이 돼 투자를 알려주
기 위해서 증권사를 찾아오게 됐
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증권
시장에는 ‘머니
무브’가 폭발
하고 있다.

갈 곳 잃
은 부동산
대기자금이
몰려드는 등
은행 예·적금
에 머물던 자금이
증권사로 대거 이동
하면서 코스피 상승에 따른
변동이 확연히 느껴질 정도라는 게 증권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은행 요구불 예금은 새해 들어 보름만에
50조원 넘게 빠져 나간 반면, 증시 대기자
금인 예탁금은 반년 만에 30조원 늘면서
96조원을 넘겼다. 활동 계좌수도 1억개에
육박하며 2007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를



광주 동구 금남로 증권사에 계좌 개설과 휴면계좌 해제를 위해 고객들이 몰려있다.

기록했다.
실제 A 증권사의 주식

매매 가능한 리테일 계좌의 수는 지난해
195만639개로 2024년 12만5851개에서
약 70만개가 넘게 증가했다.

이는 2023년 100만3721개에서 24만여
개좌가 늘어난 것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
한 수치다.

연령별로 지난해 주식 계좌를 개설한

수는 30대가 45만2491개로 가장 많았
고, 20대가 42만1467개로 뒤를 이어 젊
은 층에서 투자의 열기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40대(38만3186개), 50대(35만
5025개), 60대(15만2774개), 10대
(14만9074개), 70대 이상(3만6622개)
순이었다.

주식 매매에 소극적인 70대 이상은 수는

적지만 지난해 3만6622개로 전년 1만
7798개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신규계좌 개설
의 경우는 기존 고객들이 자녀의 계좌를
개설해 삼성전이나 SK하이닉스 같은 우량
주를 적립 매수 방법으로 선택하는 방식이
많다”며 “퇴직금이나 개인연금저축의 경
우에도 은행이나 보험업종에서 ETF 투자
를 하고 싶어서 이전에 오는 고객들이 많

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상 첫 장중 5000을 돌파했던 코
스피는 23일 장 초반 5000선을 회복한 뒤
오름폭을 줄여 4990대에서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7.54p
(0.76%) 오른 4990.07에 장을 마치며 전
날 기록한 종가 기준 최고치를 재차 경신
했다.

글·사진=임재용 기자 djawody0316@

전남신보, ‘종합플랫폼 대도약 원년’ 선언

‘12345’ 실천 소기업·소상공인 지속가능 성장 지원
1인 자영업 고용보험료·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확대

전남신보보증재단은 (이사장 이강
근·사진) 소기업·소상공인의 지속가
능한 성장을 통한 전남경제 활성화라
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올해
‘12345’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금융
과 비금융을 아우르는 종합플랫폼으
로 대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25일
밝혔다.

12345는 총보증금급 1조원, 온정적
채권회수 200억원, 전국최저 사고율
3%, 출연금 확보 400억원, 이용고객 확
대 5만개 업체를 의미하고 있다.

전남신보는 최근 고금리와 소비위축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강화하
기 위해 신규보증 공급 규모를 5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된 규
모로 보증자본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뒷받침할 전망이
다. 기존 보증서 대출의 기한연장 금액
을 합산하면 총 1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된다.

현장·수요자·지역 중심의 정책 수립
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보증상품을 확대
시행한다.

창업기업 지원특별보증(100억원)과
신성장 기반산업 육성특별보증(100억
원), 버팀목 마이너스(통장) 보증
(100억원), 중·저신용 사업자 전용 특
별보증(300억원) 등 다양한 신규 보증
상품 운영을 통해 창업 초기 소상공인
부터 경영 위기 단계에 놓인 소상공인
까지 다양한 정책 수요를 폭넓게 반영
한다.

아울러 전남신보는 소상공인의 대출
금 상환부담을 경감하고자 금융안정 패
키지를 지원한다.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상환조건
변경), 코로나피해 보증 분할상환(장기
분할상환 전환), 브릿지보증(폐업 소상공
인 개인보증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신규보증 보증료를 0.8% 초과
분에 대해 3억원 규모로 보증료를 지원
하며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
로 완화할 계획이다.



드림’은 보증 상담과 대출, 경영지도재
무조정·금융교육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
하는 종합서비스로 2025년 행안부 공공
기관의 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대외
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았다.

전남신보는 지난해 전용버스를 구입
하고 전담센터를 구성해 연 50회 이상
현장 지원을 실시했다.

올해는 현장 중심 지원을 한층 강화해
매주 1~2회, 연 70회 이상 도내 곳곳을
찾아가 예정이다.

특히 보증취약지역인 곡성과 영암에
는 월 2회 정기운영을 시행함으로써 금
융소외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전남신보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의 성장 단계 전반을 아우르는
비금융 지원을 체계화한다. 소기업·소

상공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창업학습 및
경영개선 교육 프로그램(2000업체),
성장유망기업 육성(5업체), 라이브커
머스 플랫폼 구축(50업체), 시장(골
목) 이음 패키지(4업체) 등 다양한 프로
그램을 대거 추진한다.

동시에 경영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위기 소상공인 종합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 AI기반 클리닉을 신설해 경
영진단부터 컨설팅, 비용 지원까지 연
계해 맞춤형 통합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전남도와 함께 1인 자영업자
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1인 자영
업자와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예산은 전년 대
비 3000만원 증가한 1억5000만원 규
모이다.

이강근 이사장은 “2025년 보증공급
확대와 리스크관리 강화, 출연금 확보
등 트리플 크라운 성과를 달성하며 소
상공인 금융지원 기반을 한층 강화했
다”며 “올해는 현장 중심의 금융서비
스와 비금융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
로 지원해 도내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
한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

‘농심천심운동’ 생활 속 실천 앞장

농가주부모임전남도연합회 정기총회

농협중앙회전남본부와 (사)농가주
부모임전남도연합회는 최근 전남본부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고 25일 밝혔다.

정기총회에서는 이광일 본부장과 농가
주부모임 정혜숙 회장을 비롯한 대의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사업
실적 보고와 2026년 사업계획 심의가 진
행됐다.

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는 여성농
업인을 중심으로 농촌공동체를 지탱하
는 대표적인 농업인 조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밀반찬·김장 나눔 봉사, 재해
현장 복구, 농촌일손돕기 등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통해 농촌에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왔다.

특히 올해는 농심천심 운동의 생활 속

실천 확산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농산
물 소비촉진 활동과 나눔·봉사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농업·농촌의 가치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
다.

아울러 정기총회에서는 산포농협 농가
주부모임과 담양군지부를 우수조직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들 단체는 농촌공동
체 활성화와 농심천심운동 실천에 모범적
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광일 농협중앙회전남본부장은 “농가
주부모임은 농촌을 지켜온 든든한 버팀목
이다”며 “전남농협도 농가주부모임이 농
심천심운동의 실천 주체로서 현장에서 더
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
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광주전남품목농협운영협의회는 최근 2026년 제1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신임 배정섭 광주전남품목농협운영협의회장

광주전남품목농협운영협의회 신임 회
장으로 배정섭 전남서남부채소농협 조합
장이 선출됐다.

광주전남품목농협운영협의회는 최근
농협 전남본부에서 이광일 농협중앙회전
남본부장, 채규선 협의회장과 품목농협
조합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제1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향후 2년
동안 협의회를 이끌어 나갈 신임 회장에
는 제도개선과 지원확대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임정호 기자 jh4415@

동이 농업인들과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
도록 참여와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채규선 조합장은 “을 한해도 국민의 먹
거리인 원예농산물 생산을 위해 구슬땀
을 흘리는 농업인들과 함께 성장하는 품
목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일 본부장은 “을 한해도 전 구청원
모두 다 동심협력의 자세로 농업인들에게
웃음을, 국민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지은행사업에 3375억 투입

농업인 영농기반 확보·은퇴농가 노후 보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2026
년도 농지은행사업비 3375억원을 투입해
농업인의 영농기반 확보와 은퇴농가 노후
보장에 적극 나선다.

총사업비 중 72%를 차지하는 ‘공공임
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전년도(1334억
원) 대비 83%이상 증액된 2439억원을 확

보해 우량한 임대농지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청년농업인의 초기 농지구입 부
담을 줄이기 위한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91억원을 투입해 지역 청년농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올해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대표적

으로 1월 1일부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
지임대수탁사업’의 위탁수수료를 전면 폐
지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그동안 사후관리
등 사업관리를 위해 농지 소유자에게 위
탁수수료(연간 임대료의 2.5~5%)를 부
과해 왔다. 하지만 최근 농지재값 인상 등
농업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짐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 위탁자의 수수료를 ‘전